

[사회]

# 고병원성 AI 발병 충남 아산농장서 새끼오리 2만마리 전남 4곳 유입

## 보성·장흥·영암·고흥 긴급 방역 道 “지역농가 전파되지 않았을 것”

충남 아산의 오리농장에서 네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된 가운데 전남에서도 4개 오리농장이 아산의 오리농장과 직접적인 역학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 이들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아산의 씨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오리알은 모두가 안성의 부화장을 거쳐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분양된다.

새끼 오리들이 지난 11월1일과 22일, 29일 그리고 지난 4일 각각 전남의 오리농장으로 입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최근 안성 부화장에서 들어온 새끼 오리의 경우 분양된 날짜가 12월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산의 농장에서 알이 생산된 시기는 11월3일경”이라며 “이

시기는 AI가 발병하지 않았던 만큼 지역 농가에 AI가 전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탕정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가운데 22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반경 3km 내 위치한 한 농가에서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N-POOL 대전일보 = 신호철 기자

농림부는 지난 21일 오후 “지난 11일 신고된 충남 아산 탕정면 씨오리 농장의 폐사원인과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부와 전남도는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류 2만3천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10km 안의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남도에서도 보성과 장흥, 영암, 고흥 4개군에서 각각 1곳씩의 오리농장이 아산의 씨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알로부터 부화한 새끼오리 2만400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22일 확인됨에

## 술자리 ‘NO’... ‘봉사 송년회’ 갑니다

매년 이맘때면 각종 송년회 모임에 대한민권이 “들쭉”이다. 예약이 밀려 유명한 식당은 자리 잡기가 힘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지난해를 보내며 반성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송년회(送年會)의 뜻이 무색할 정도다.

◇자취, 불을 끄고 경기를 하는 ‘깜짝 이벤트’도 열렸다. 주부 이모(여·43·광주시 동구 운림동)씨 등 광주 H초등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원 5명은 16일 간단한 저녁식사 후 이송철 콘서트 관람으로 송년회를 대신했다.

◇자취, 불을 끄고 경기를 하는 ‘깜짝 이벤트’도 열렸다. 주부 이모(여·43·광주시 동구 운림동)씨 등 광주 H초등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원 5명은 16일 간단한 저녁식사 후 이송철 콘서트 관람으로 송년회를 대신했다.

## 가족여행·콘서트 등 차분한 송년회 늘어

속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예약, 밤새 이야기翻看 수 있다. ◇연말은 힘든 이웃을 위해=회사원 국민(41)씨는 연말 술자리 대신 봉사자를 택했다.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집매 서석고 정문애 정원빌라

상속한정승인공고

사람을 찾습니다

전원주택지분양 (150평~250평)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공무원 2007 국가직 경쟁특채 800명

산행안내

한울산악회

사람을 찾습니다

전원주택지분양

현대직업전문학교